



천안3공단 삼성디스플레이 인근도로 '무법천지'

하루 수천명 유동인구로 도로는 온통 불법주차... 삼성 무관심 · 책임회피에 '급급'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인근도로(3공단 5로길)

충남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도로가 수 년 동안 불법주차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지만, 정작 원인 제공자인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나몰라

라하며 뒷집만 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은 천안 5·6라인에 대해 철거 및 설비보수를 위해 대대적인 외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에 많게는 수 천명에 달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턱 없이 부족해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 K씨에 따르면 "현장 인력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올라와 인근 원룸이나 모텔에서 숙박 생활을 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그래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새벽 주차전쟁으로 8시 출근시간보다 두어시간 빨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단속팀에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정기적으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통지도팀 관계자는 "삼성에서 많은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주차 시설부지를 먼저 확보해 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줄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면서 "현행 단속카메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 있고 민원 발생시 출동해서 직접 단속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주변은 모두 주차 금지구역이며, 특히 불법 주차가 극심한 '3공단 5로길'은 민원이 심해서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 취재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결국 담당자 부재 라는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종호기자



서산·태안· 가로림만 한파에 공공얼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가로림만 앞바다가 공공 얼어붙었다. 최근 북극 한파가 서해안으로 내려와 4일간 영하 9~12도를 오르내린 한파로 인해 가로림만이 얼어 붙었다. 서산시 대신을 지곡면 팔봉면 태안군을 사이에 있는 바다 앞은 쪽부터 결빙이 생기기 시작해 12일 현재 약 10cm 두께에 얼음이 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심척의 어선들은 발이 묶였고 수확기를 맞은 갈대과 굴 채취도 불가능 상태라 어민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어민들은 삼삼오오 마을회관에 모여 15일 오후부터 날씨가 풀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기대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정부 공식 추진안 발표

청와대는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 공식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데 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설치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받는 안보수사처를 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 조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정권에 불리한 발언을 이어간 문화체육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무기로 각종 조작사건에 연루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 수사를 해왔다는 부분도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포함됐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

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말 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 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까지 가져가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을 예고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의 분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

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인들까지 참여하는 경찰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국 수석의 이날 발표는 정부 추진안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 정권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결과 청산도 재확인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이 꾸려지는 대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밀양 송전탑·용산 화재 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적절성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역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한 뒤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찾아가는 청렴교육’으로 청렴의지 다져

농어촌공 충남본부, 남양주 다산정약용선생 유적지 찾아가



농어촌공 충남본부(본부장 김병찬) 관내 11개 지사에서 사용자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청렴정신을 배우기 위해 남양주 다산 정약용선생의 유적지를 찾았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업무담

당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실시된 이번 청렴교육은 기존의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직접 청렴정신으로 유명한 역사적 위인의 유적지를 찾아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청렴서약식'을 갖고, 공정과 청렴의 자세로 복무할 것을 다짐한 후, 실학박물관 관계자로부터 청렴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서, 다산 유적지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렴정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눠보고 이를 몸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본부 사용자 담당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하나되어' 회원들은 이번 '청렴유적지 탐방'을 통해 배운 역사속 청렴사상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정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부패제로(ZERO)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사용자가 담당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김태선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향상에 큰 기여”

구미경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대전 서구 탄방동 더오펀더빌에서 열린 2018년 대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장애인이 살기에 편리하고 안전하면 비장애인도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구미경 의원은 2014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대전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 3년여동안 의정생활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익보호였다. 구미경 의원 본인은 몸이 불편하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더 자주 만나 이들의 어려움에 더 귀 기울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구미경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대전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지난 3년여동안 느꼈던 소회는?

이전의 삶에서도 그랬듯, 저의 3년동안 환경같이 소외계층을 대변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 노력했으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합리적이며 양심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결코 갑의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그 자리를 지키는 정치인이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께서는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특별히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남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저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으로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입니다. 또한 장애 어린이들은 학교와 병원에서 부족하여 비장애인이 누리는 교육과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목격한 후로 그들을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레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전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구분되는데,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69곳, 지역사회재활시설은 57곳, 의료재활시설은 2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9곳입니다. 이를 시규모가 비슷한 대구, 인천, 광주, 울산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숫자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대구, 인천, 광주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대전지역 기관과 업체들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은데, 또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지요.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대전지역 기관과 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은 대전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전체 2,200여명중에 74명으로 4%이며, 대전시 산하 대전도시공사 등 4개기관 공공기관 고용율은 1,993명중 112명으로 5.6%입니다. 또한 대

전지역 일반 기업체 장애인고용률은 총 643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99,311중 4,807명으로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굉장히 미흡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종종 고령 여성 장애인 고용이 특히 저조합니다.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지원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되고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직업훈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인 '구인당'을 창업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약국을 경영하며 여성장애인연대 창립대표를 10년 역임했었는데요, 후원자님들의 기부금으로만 협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하던 한약사로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7개의 특허를 냈으며 그 특허를 기반으로 구인당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여성장애인도 고용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도중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구인당 벤처기업은 사실 같잡이 됩니다.

▲의원님은 지난해 환경대상과 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환경과사람들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범 시민단체연합 등 189개 참여단체가 후원한 '2017 대한민국 환경문화공헌대상' 및 환경인 컨퍼스티벌' 행사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문화 공헌'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의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을 더욱 잘 섬기라는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도전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박병석의원님이 지역위원장으로 계시는 서구갑 제1선거구 내동, 가장동, 변동, 괴정동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늘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지역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남보다 늦게 시작했고 활동장애가 있는지라 행동이 느릴 수 밖에 없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기때문에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의 두번째 뜻은 바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한 시민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이었지요.

저의 정치 철학은 '정치는 양심과 진리를 토대로 삼아야 하고 인간을 위한 이타적 봉사로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코의 무혈혁명으로 입성한 비즐라프 하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문장을 본 순간부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즐라프 하벨 대통령은 또한 '정치는 책임감과 존재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한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치는 계속단순한 기술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치를 불명예스러운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로 정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정치철학으로 삼고있습니다. 저처럼 과묵하고 보이지않는 곳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안전한 사람도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듯 정치 또한 마냥 잘 될수는 없지만, 플라톤의 말로 다지는 의지와 주변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제 소신껏 정치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따뜻한 정치인으로서 주민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한글타이머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빠르게 달리는 기술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기술까지 타이머는 수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은 자연까지 생각하고 보호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신생한 한글타이머는 안전이라는 최고의 미션을 한글타이머가 자신과 임의하게 해냅니다.

enfren
압프랑 효과란? 타이어 표면의 압프랑을 늘려서 마찰력을 높여주는 기술

한글타이머
타이어

당진화력 5호기 6만시간 무고장 달성

동서발전, 국내 최초 500MW급 초초임계압 기력발전 최장기 무고장 운전



무고장운전은 불시정지, 기동 실패, 비계획정비 정지 없이 발전기를 연속으로 운전한 것을 의미하며 설비의 운전·정비·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지표이다.

당진화력 5호기는 2005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초임계압 발전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설비 트러블을 다각적으로 분석·개선함으로써 2010년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약 7년 5개월) 고장 없이 연속 운전해 장기 무고장(LTF) 60,000시간을 달성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무고장 기록은 전사업소 '3Z 운동'(안전사고, 불시고장, 청렴위반 Zero) 전개, 기본수칙 준수 및 취약설비 집중 개선 등 전방위적인 설비관리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국내 최초 1,000MW급 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9,10호기를 준공해 우수한 발전 운영 기술과 최첨단 ICT를 융합한 'Smart 발전운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직무대행 박희성)는 지난 9일 당진화력 5호기가

500MW급 초초임계압 기력 발전소로서는 국내 최초로 최장기(6만시간) 연속 무

고장 운전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달

청양군은 2018년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각종 인?허가, 등록, 지장, 검사 등)를 받은 자다. 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미리 잔액을 확인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유지원 아산시농기센터 소장 농축산업 현장 방문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농축산업 관련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은 염치 산양리에 위치한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장을 비롯해 아산시농축산물자원화센터, 도고A방역초소, 염치읍 방영철(64)양돈농가, 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송악면 농촌체험관광사업단 등 농업관련 주요 현장을 찾아 현황 및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축산물자원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염치농협 정낙원 조합장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

난해 보다 축소됐다."며,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량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유지원 소장은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검토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지원 소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승진 부임해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비롯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시 우량기업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3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30개 기업 유치 목표... 외부재원 확보·인프라 구축에 '총력'



서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해 투자,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노린다.

시는 자동차, 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서산시 3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목표치를 늘려 잡은 것은 시는 올해 기업유치 목표를 지난해는 물론 이완섬 시장의 공약인 20개보다 10개가 더 늘어난 30개로 세웠다.

이와 같이 목표치를 늘려 잡은 것은 그간 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개 이상의 우량기업을 유치한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시는 오토벨리와 테크노벨리 등 미래 산업단지에서 이들 기업을 집중 유치해 단지별 산업 집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략적·단계별 기업유치에 나선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협력사 및 수도권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마케팅과 기술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대규모 신·증설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

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서산-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국제여객선 취항 등에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완섬 시장은 "올해도 정기집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우량기업의 적극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며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철도공단 해외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1일 해외 철도사업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해외사업본부는 세계철도시장 규모, 전망 그리고 공단의 해외 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공단이 수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 인도 러크나우(Lucknow) 메트로 PM용역 사업, 이집트 철도신호 현대화 건설사업, 중국 정만선 중경구간 시공 감리 사업의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해 공단이 기술지원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 간 720km 기준선 속도향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지에서 직접 수행한 직원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사업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해외사업본부는 '해외사업 기술지원반 구성(안)'을 발표해 해외사업의 수주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자율적인 토론을 통한 혁신활동을 통해 기술지원반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도공단 김도원 해외사업본부장은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해외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술지원반 구성으로 한국의 철도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2단계 사업을 수주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최저임금 준수·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캠페인 실시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12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지사장 김용문)와 합동으로 천안종합터미널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천안고용노동지청 등은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 영세 중소기업체 사업주 및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고용안정 및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을 지원한다.

한편,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8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중에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취약사업장 위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여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편법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위반 사례 신고를 받고 있으며, 취약업종 및 이면에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6대1 후보자등록마감 후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열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실시하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 회장 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총 6명이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처음 위탁한 선거로 중앙선거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포함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사무를 제외)를 관리한다.

후보자는 지난 12일부터 선거일 전인 다음달 1일까지 21일간 선거공보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후보자

합동조건 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6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되며, 투표 및 개표는 2일 총선거일에 위치한 MG인재개발원에서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후 중앙선거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실시한다.

한편, 이날 후보자들은 중앙선거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해 돈 선거와 비방·흑색선전을 단호히 배격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병배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구직자 80% “취업 준비하다 눈물”

<커리어>조사결과... 눈물 흘린 이유는 ‘내 자신이 초라해서’ 가장 많아

구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취업 준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컷 울고나니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만 하고싶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답했다.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원)가 구직자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9%가 취업 준비를 하다가 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는 답변은 20.1%에 불과했다.

눈물을 흘린 이유는 '내 자신이 초라해서'가 49.1%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31.8%)', '채용 전형에 불합격해서(15.9%)', '부모님과 싸워서 또는 혼자서(3.2%)' 순이었다.

눈물을 흘린 장소로는 '본인 방(70.8%)'이 1위를 차지했다. '화장실' 12.4%, '독서실/도서관' 10.7%, '버스/지하철 안' 5.8%였다. 기타로는 '길거리에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 울고나서

든 감정은 어땠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그만 하고싶다(56.4%)'고 답해 취업 준비 기간에 지치고 힘든 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43.6%였다.

본인이 겪은 구직병의 증상(복수 응답 가능)을 묻자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22.2%)'가 가장 많았다.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는다(15.6%)', '대인기피증이 생겼다(15.4%)', '멍하게 있는 시간

이 많아졌다(13.2%)', '하루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다(12.8%)', '새벽까지 채용공고를 찾는다(12.4%)'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구직병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신경은 쓰이지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68.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구직활동 외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의견도 30%나 됐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1.6%에 그쳤다. 이정복기자

청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 학생 겨울계절학교 운영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영)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겨울 계절학교는 방학이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어 교육·문화적으로 소외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에는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0명, 둘째 주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5명이 참여

하여 총 25명이 계절학교를 참여했다. 오전에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지도자와 함께 청양중학교 체육관에서 킥볼, 후크볼 등 체육활동을, 오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요리와 미술활동 등을 진행했다.

윤주영 교육장은 "이번 겨울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공주 의당초, 돌봄교실 작은 음악회 열려 의당초등학교(교장 오병익)는 지난 12일 돌봄 교실에서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겨울방학 기간 중 2주간(1.2~1.12) 겨울방학 행복로드 3.0 융합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캠프는 꿈의 학생 오케스트라, 스포츠교실, English Camp, 꿈바른, 대학생 도우미제 운영,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들의 재능과 흥미에 따라 희망하여 참가했다.

대전교육청, 급식실 현대화사업 80억원 투입

대전체육고 등 9개교 대상으로 스마트 학교 급식시설 조성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8년 총 80억원을 투입해 대전체육고 등 9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진행 중인 급식실현대화 사업은 화정초, 성남초, 지족초 등 3개교이며, 새학기 이전인 2월 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또한, 착공 예정인 체육고는 4월 중에 완공 예정이며, 대신고 등 5개교(목양초, 옥계초, 갈마중, 전민중)는 여름방학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대전교육청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된 급식실을 HACCP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학교 급식시설로 조성하고 청결, 안전, 편리한 조리환경으로 만들어 쾌적하고 효율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박진규 시설과장은 "급식실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로서 사업이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노후 급식실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산 중앙고 총동문회, 1300만원 기탁

2018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서산중앙고교장 송기우는 1월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재경 서산중앙고동문회 2018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행사장에서 동문들로부터 발전기금 1300만원을 기탁 받았다.

서산중앙고 총동문회 일동은 지역의 발전과 모교 사랑, 후배 사랑의 마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후배들이 모교를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미래의 주

인공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선배들의 마음과 뜻을 담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서산중앙고 총동문회 일동은 앞으로도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끈이었던 지원을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약속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대입제도 개선 논의의 장 마련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선 포럼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계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에 바란다. 고교교육에 기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권오현 전 입학본부장, 두루고 백정인 학부모, 한솔고등학교 문민식 교사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며, 청중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학부모,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로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발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고, 권오현 전 입학본부장이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에서 대학은 고교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가?', 두루고 백정인 학부모가 '학부모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 한솔고 문민식 교사는 '고교는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기를 바라는가?'를 발제하며 청중들도 질의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논의의 내용과 결과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임시제도혁신분과에 제출하여 임시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동네BOOK글놀이학교 글잔치' 실시

아산교육지원청, 관내 중·고등학생 50여명과 학부모 함께 가져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삼훈)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50여명과 학부모가 함께 함께하는 아산글놀이학교 '동네북(BOOK) 글놀이학교 글잔치'를 실시했다.

지난 5일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네BOOK글놀이학교'를 열어 시, 소설, 논술 영역의 우리지역 작가와의 만남, 갈래별 글쓰기를 위한 기초를 배웠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 소설, 논술글을 쓰고 일주일간의 온라인 첨삭지도를 통해 각자의 작품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동네BOOK 글놀이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은 방학기간에도 불구하고 평소 관심이 있던 시, 소설, 논술 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글놀이학교를 찾았고, 자신의 생각을 글의 종류에 맞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동네BOOK 글놀이학교' 지도 강사는 늦은 시간까지 이메일로 보낸 학생의 글에 대한 1:1 온라인 첨삭지도를 실시했고, 학생들은 첨삭지도 결과를 반영하여 글을 완성해 나갔다. '동네BOOK 글놀이학교 글잔치'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이 시, 소설, 논술 등을 직접 발표하고 활동 소감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종류의 갈래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작의 과정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아산교육지원청은 2018년 역점과제인 '아산글놀이학교'가 각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역량강화 연수, 동아리 활동 지원, 문집발간 등을 계획·실시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나기도록 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2018 충남진학교육지원단 144명 출범

충남도교육청, 배움·실천·나눔의 충남 진학교육특공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일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교사 144명으로 구성된 '2018 충남진학교육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충남진학교육지원단은 지난해 78명이었으나 대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학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생 맞춤형 진로기반 진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144명으로 두 배 늘었다.

지원단은 5개팀으로 구성되는데, ▲토론회팀 지원팀은 소통과 참여중심의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대입설명회, 진로진학토론회, 진로진학 토론회를 지원하며 ▲컨설팅 지원팀은 학생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당진도서관 '책 읽는 모습' 사진 전시

2017년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공동협력사업 추진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관장 문정숙)이 오는 26일까지 당진도서관 1층 로비에 '책 읽는 모습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017년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책 읽는 모습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것으로, 서부지역주민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당진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책 읽기 생활화와 독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당진 시민들이 책 읽는 자세를 쉽고 친근하게 여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당진도서관은 앞으로도 당진지역 독서 활성화와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영어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영어캠프'

늘봄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총 60명 대상

세종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학교인 늘봄초등학교(학교장 정미자, 이하 늘봄초)가 2017학년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18 세종영어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영어캠프(이하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늘봄초 및 공동학구(아름·도담동) 3~6학년 학생 총 60명을 대상으로 늘봄초 Sophie Rans소피라니스강사가 세종영어교육지원센터 2층 영어체험실에서 진행한다.

총 2회차로 나누어 운영하며 1회차는 1월 2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2회차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학급 편성은 학년(군/별·수준별)로 3~4학년 2개반, 5~6학년 2개반으로 1반에 각 15명씩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으며, 언어의 4가지 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인 영어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과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색

통정

주간업무보고회의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은 15일 오전 8시 40분 중회의실에서 주간업무보고회의를 주재.

주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은 15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 보고, 오전 10시 웨스트포아에서 열리는 민선6기 결산 신년 언론인 간담회,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보령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새해 시민과 대화



이완섭 서산시장은 15일 오전 9시 45분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 시민과 대화에 참석, 오후 2시 15분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 시민과 대화에 참석.

제64회 백제문화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백제문화제를 글로벌 명품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7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분야로는 체험, 공연, 퍼레이드, 이벤트 등이며 백제문화의 정통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시·공고란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공주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kyoung235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체계성 등을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작 1명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우수작 2명에게는 각 50만원, 가작 3명에게는 각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64회 백제문화제는 '한류연조, 백제를 즐기다'라는 주제와 한류의 대표적인 상징인 '백제의 춤과 노래'를 부주제로 오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공주=정성범 기자

新성장동력 발굴 · 주민행복 실현 역점

금산군, 2018업무계획보고회 개최... 혁신군정 다짐

금산군은 지난 11일 박동철 군수 주재로 실·과·단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뢰와 혁신의 군정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보고회는 2017년 주요 성과, 2018년 군정여건과 추진방향, 신규 및 역점 사업 등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의 추진 계획 및 미완료 사업대체 등 부서장들의 자유로운 토론 속에 정보를 공유하며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정부 시책에 발맞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예산 확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저출산 해법 모색 등 새로운 국정 과제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데 공감을 나눴다.

금산인삼 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

업유산 등재를 위한 실과별 협업연구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력산업인 인삼약초 세계화·명품화, 금산농업 경쟁력 확보, 군정발달사업, 정주기반, 문화체육 등 군민들의 삶과 질과 생활편익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인 의견이 오갔다. 금산=전정만기자

박동철 군수는 "작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어려움 없이 군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가시적 성과 창출과 민선7기의 주춧돌 완성 등 군정 발전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제1분기 평생학습센터 강사 위촉

서산시 "평생학습 저변 확대·지역 학습문화 발전"



서산시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저변문화 확대를 위해 편성한 총 145개 주·야간 강좌가 지난 10일 열린 21명의

강사 위촉식과 함께 일제히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는 시민교양대학, 생활법률교육, 인문학 및 테마특강 등다

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저명한 전문강사를 섭외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6일까지 접수 중인 시민교양대학은 이미 정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식에서 이완섭 시장은 "앞으로도 서산시는 평생학습 저변 확대와 지역 학습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 선포이후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학력보완 기초교육과 경력단절 여성 및 남성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변화하는 시민수요에 맞춘 정규강좌를 개설해 연간 5,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서산시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부모는 매달 1만5천원서 2만 2천원까지

서산시가 누리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시설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3~5세 아동의 학부모에게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이다.

그간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 아동은 월 44,000원을, 만

4~5세 아동은 월 3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왔다.

이에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부담금이 존재하는 데 따른 정부지원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예산 5억 9,400만원을 확보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만3~5세 아동에게 차액보육

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부모는 매달 1만 5천원에서 2만 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된다.

시 관계자는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인구 늘리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서해안의 다도해 지역

연료운반선 건조기로

보령시, 2018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선정



충남 보령과 홍성, 서천의 17개 도서 지역 주민 3300여 명에게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공급하기 위한 선박이 건조된다.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18년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에 선정, 국비 10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을 투입해 연료운반선을 건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을 투자, 50~100톤 규모의 연료운반선 8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다를 수 있는 섬 지역의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시·군 재정상황을 감안해, 여러 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료운반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에서 유인도가 가장 많은 보령시(15개)가 배를 제작·소유하고, 인근 서천군(1개)과 홍성군(1개)까지 운행하며, 운행주기는 해당 섬의 인구, 연료 수요 등을 고려해 주 1회에서 월 1회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한편,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는 증편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경제성 등으로 정기 화물선이 다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의 특수화물선을 임대해 비정기적으로 연료를 운송하거나, 개인은 어선을 통해 불법적으로 연료를 운송해 왔지만, 정기적인 연료운반선 운항으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연료운반선 설계·건조를 통해 침체된 지역 조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 재무결산 교육 실시 보령시는 12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 분청과 산하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사무소 회계담당자 및 각종 기금, 특별회계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재무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ith modern amenities. It lists three main features: 1. Modern Convenience, 2. Beautiful Environment, and 3. Quality of Life.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EST PLAN and a phone number 042-624-1204.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윤재(송원석)에게 고백 후 거절당한 홍주(윤다영)는 한강 창고에 든 도둑을 발견하고, 박랍희(김민서)를 지키기 위해 도둑과 맞서다 선반에 부딪혀 정신을 잃는다. 뒤늦게 쓰러진 홍주를 발견한 윤재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태성(임호)과 달레(유지연)는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간다.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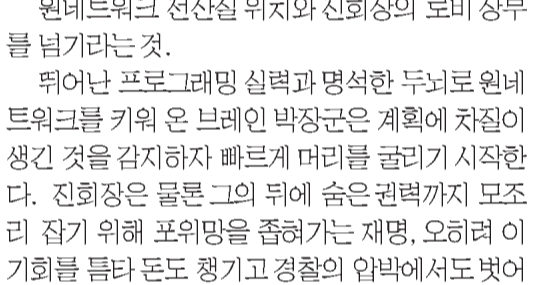
계속되는 화영의 괴롭힘에 예은은 점차 지쳐가고

케이블 영화

마스터 (OCN 오후 6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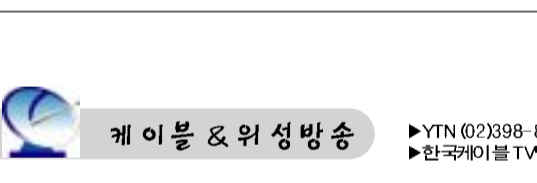
"짧은 머리 이번에 꼭 다 잘라낸다" 화려한 언변,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수만 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해 온 원네트웍 '진회장' (이병헌).

투깝스 (MBC 오후 10시00분)



너 혼자 아니었어. 동탁(조성석)은 라이더에 숨겨진 녹음 파일을 통해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다. 검은 헬멧 검거를 위해 모든 경찰 병력이 투입되지만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긴다. 한편, 동탁은 16년 전 사고에 얽힌 모든 인연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투모로우랜드 (채널CGV 오후 10시 20분)



할리우드 명품 스튜디오 디즈니가 선사하는 프로젝트. 2015년 가장 기대되는 SF 어드벤처 <투모로우랜드>

진섭은 예은이 흑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때, 화영의 아버지는 진섭에게 한담안에 예은과의 이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진섭의 회사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하는데...

투깝스 (MBC 오후 10시00분)



너 혼자 아니었어. 동탁(조성석)은 라이더에 숨겨진 녹음 파일을 통해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다. 검은 헬멧 검거를 위해 모든 경찰 병력이 투입되지만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긴다. 한편, 동탁은 16년 전 사고에 얽힌 모든 인연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투모로우랜드 (채널CGV 오후 10시 20분)



할리우드 명품 스튜디오 디즈니가 선사하는 프로젝트. 2015년 가장 기대되는 SF 어드벤처 <투모로우랜드>

선택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평행 세계 투모로우랜드. 최고의 천재 과학자 데이빗(휴 로리)은 지구 종말을 대비해, 투모로우랜드를 또 다른 최첨단 과학 기술의 세계로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우연히 투모로우랜드에 들어갔던 프랭크(조지 클루니)는 그곳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데이빗과의 대립에 의해 추방 당하고, 이후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은둔하며 살아간다. 한편, 현명하고 호기심 많은 십대 소녀 케이시(브릿 로버트슨)는 우연히 투모로우랜드의 티켓인 '핀'을 접게 되는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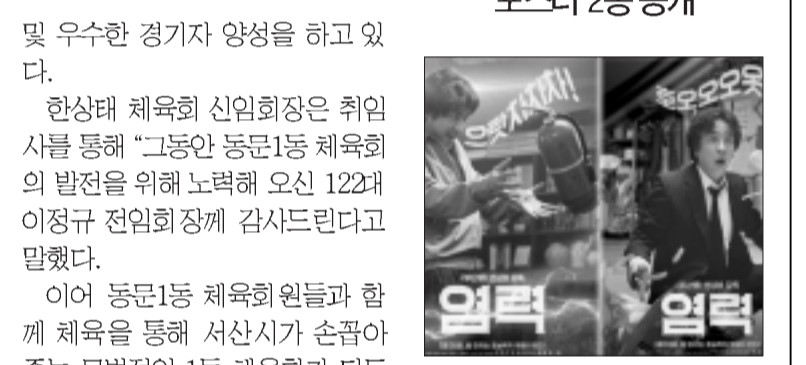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서산시 동문1동, 한상태씨 13대 체육회장 취임



서산시 동문1동 13대 체육회장 한상태씨가 지난 12일 CN 충남 웨딩컨벤션모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체육회 임원들과 동문1동 체육회 임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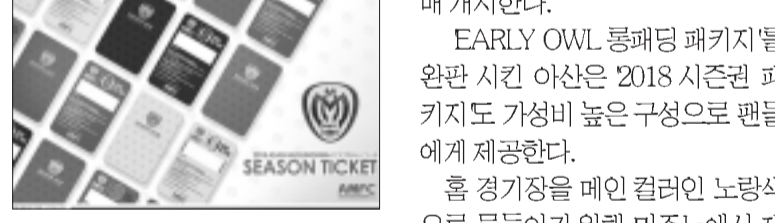
영화 '염력' 초능력 포스터 2종 공개



<부산행>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아빠 '석현' (류승룡 분)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빠진 딸 '루미' (심은경 분)가 세상을 맞서 상상초월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아산무궁화축구단, 2018 시즌권 패키지 판매 개시

오전 11시부터 흥경기 전체 관람 가능 패키지 판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12일, 오전 11시부터 흥경기 전체 관람이 가능한 '2018 시즌권 패키지'를 판매 개시한다.

매지아 한해 '구단용품 교환권 5만원'을 선시할 예정이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2018 시즌권 패키지' 가격은 일일 티켓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VIP권 (W구역 테이블석) 25만원, 일반권 (WE구역 통합 운영) 성인 9만원, 청소년 7만원, 어린이 5만원이다.

송강사회복지관 청소년드림아카데미, 배구경기관람 하다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청소년드림아카데미에서는 지난 13일 정규 토요체력으로 삼성중공업에서 후원받아 함께 KGCI삼공사프로배구단 VS 김천 하이패스 배구단의 경기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다양한 놀이를 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배려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청소년드림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주말체험 프로그램, 진로지도, 상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고문의 (042)538-3030.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양이 거래해 드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with columns for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한국중부발전,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중부발전(사장직무대행 장성익)은 11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은 21명의 대학생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젊은 고객층과의 활발한 스킨십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밭대, 국립대학 혁신 위한 교수법 워크숍
한밭대학교(총장송하영)는 12일 오전 10시 도서관 대강의실에서 '국립대학 혁신을 위한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목화반점 김순옥 대표, 나눔리더 아산1호 가입식 가져
목화반점 김순옥 대표가 아산시 첫 번째 나눔리더가 됐다. 아산시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일, 김순옥 목화반점 대표, 송명희 복지문화국장, 박승우 사회복지과장, 이훈 충남공동모금회 배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리더 인증패전달식'을 갖고 김순옥 대표를 아산1호, 충남2호 회원으로 등록했다.



화성면산악회, 민면 인경기원 시산제 개최
청양군 화성산악회(회장 장각현)는 지난 13일 화성면 백월사에서 민면 인경기원을 위한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시산제는 무술년 새해 화성면민의 안녕과 산악회의 무사고를 기원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다.



예산군, 충남도 서각동우회(오각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전달받아
지난 12일 충남도청 서각동우회 오각회에서 전사회를 통해 냄비받침을 제작·판매한 수익금 93만 7000원과 지도감사인 봉대 공방 정봉기 대표가 50만 원 총 143만 7000원을 군에 기부했다.



정산배구회, 인경기원제 열어
청양군 정산배구회(회장 장유성)는 지난 10일 정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인경기원제를 지냈다. 이날 기원제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회원들이 부상없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염원하고자 마련됐. 전 회원들은 큰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치며 배구회의 발전을 염원했다.

대덕대 LINC+ 사업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DDU 취·창업 캠프” 개최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LINC+사업단·창업지원센터는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여 롯데리조트 나솔룸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DDU 취·창업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와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취·창업캠프는 공과대학 및 예체능 등 총 2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에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경영시뮬레이션을 게임을 시작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실전 모의 면접



까지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되어보며 원하는 인재상을 도출해보기도 했으며, 인사채용공고까지 작성해보며 기업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날에는 입사서류 작성 및 1:1 코칭을 통하여 입사서류를 완성하였으며 마지막날에는 실전 모의면접을 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취업역량강

화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남택영 창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임한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회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의 LIN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덕대학교는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병복기자

사랑의 사다리 밴드, 사회의 훈훈한정 나뉘

소외계층 230명에게 밀반찬 봉사



사랑의 사다리 밴드(리더 이정제)는 지난 13일 오전 9시~오후 1시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영광교회(담임목사 오상현)에서 대전시 소외계층 230명에게 사랑의 밀반찬을 직접 만들고 전달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봉사에는 나눔봉사단 유희자 단장, 다문화가족봉사단 박인옥 단장, 산악회 김호현 회장, 운영위원장 박영준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 70명이 무생채, 멸치마늘종볶음, 양파초절임을 3개팀으로 나누어서 밀반찬봉사를 하였다.

유희자 나눔봉사단장은 “추운 날씨에도 회원 70분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밀반찬을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봉임 팀장(임심방문 요양센터 운영)은 “오늘 저녁식사에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230인분의 양파초절임 반찬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사다리 밴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대전시 소외계층 230명에게 꾸준히 사랑의 밀반찬 봉사를 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지사장 김남표)는 지난 10일 사업관계자 및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이인면 이인리 일원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 이인복합센터, 활방 녹색쉼터, 활방이야기터 등을 건립함으로써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이인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온양용화고 학생들, 독거 어르신 방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 사업 일환... 겨울이불 전달



아산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공동단장 심홍섭, 강연익)은 지난 11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사업의 일환으로 온양용화고등학교(교장 문동준)와 연계해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세대 15가구에 겨울이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온양용화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및 직업 교육 활동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세대에 겨울이불 15세트를 구입해 직접 전달하게 됐다.

이번 봉사는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이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번변한 겨울이불 없이 낡은 이불로 생활하시는 취약세대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얻어 직접 세대를 찾아가 소식을 접한 용화고등학교에서 가까이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됐다.

함께 나누는 행복한 온양5동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한과에도 불구하고 이불에 걸쳐 직접 세대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동절기 안부를 살피며 겨울이불을 전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온정의 손길 내 놓아



대한 적십자사 충남지사에 2013년 300만 원의 기부를 시작해 매년 400만 원씩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프로미스 주식회사. 대표 정문식이 올해도 변함없이 온정 손길 내 놓았다.

프로미스 주식회사는 반도체, LCD 생산장비 및 무역자동화 사업을 운영하며 6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정 대표는, 생명을 구하는 여러 활동과 다양한 방면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어 적십자에 후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산시청, 근처 교회, 학교의 추천을 받아 소년소녀가장 6명을 매달 20만 원씩 후원하고 있으며, 1년에 2명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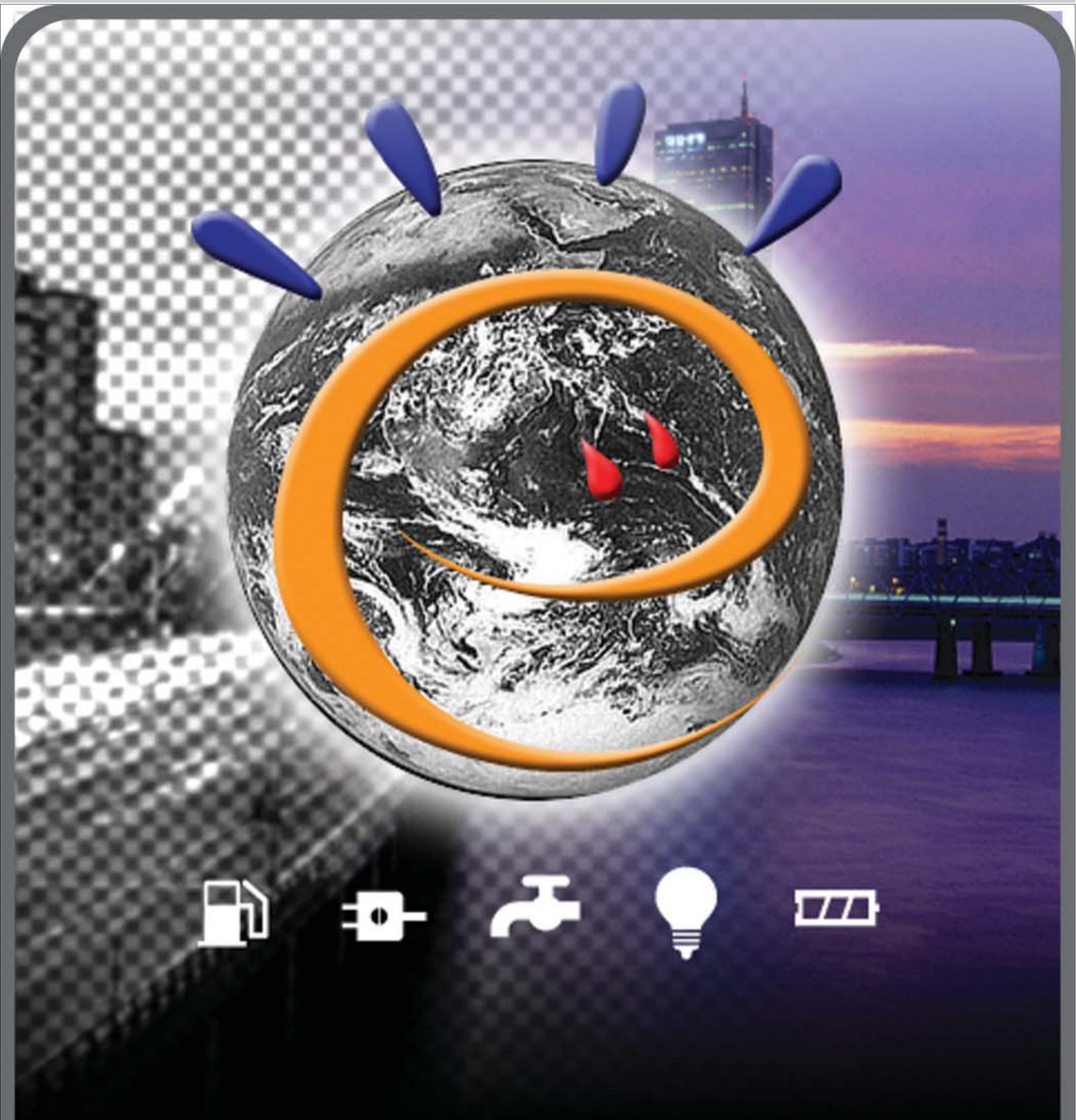
프로미스 주식회사. 정문식 대표는 얼마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산 아너소사이어 타 1호'로 가입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내포=김정한기자



연양초 장세민양, UCC 공모전 상급 부문 수상
연양초등학교(교장 엄창선, 이하 연양초)에 재학 중인 6학년 장세민양이 2017 세종교육UCC 공모전 수상자상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세종시장 애인부모회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 인사**
- 아산시
- ◇ 감사위원회 ▲ 남기운 ▲ 원지희 ▲ 이재은 ▲ 이상욱 ▲ 장경숙
 - ◇ 개발정책과 ▲ (개발2팀장) 장요순 ▲ 강희덕 ▲ 김두수 ▲ 이현석
 - ◇ 건설과 ▲ (하천관리팀장) 서종경 ▲ 강준혁 ▲ 최석원 ▲ 최이영 ▲ 황진영 ▲ (충청남도 계획인사교류유수진)
 - ◇ 건축과 ▲ (건축지도팀장) 김진정 ▲ 남궁옥화 ▲ 박세연 ▲ 최준희 ▲ (심무수습) 김동현
 - ◇ 경로장애인과 ▲ (경로시설팀장) 이승용 ▲ (장애인지원팀장) 성주아 ▲ 은정혜 ▲ 이상백
 - ◇ 공공시설과 ▲ 임병권 ▲ 공원녹지와 김이태 ▲ 공원녹지와 박양산 ▲ 공원녹지와 사철환 ▲ 공원녹지와 유원규 ▲ 공원녹지와 이재민
 - ◇ 교육지원담당관실 ▲ 김현수
 - ◇ 교통행정과 ▲ 김국태 ▲ 김기호 ▲ 이정규 ▲ 정서영 ▲ 최병주
- ※ 아산시 인사본보 홈페이지 참조.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비산업기술진흥재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성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osan Forestry Cooperative

 그밖, 농림단체, 단정된 농촌생활 농사교육, 농가방과교과!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에서 최가장 우수농

금산공판장G마트